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5 | 현몽쌍룡기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우선 이 작품의 갈래인 ‘가문 소설’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해. 주인공 개인의 영웅적 능력보다는 가문 전체의 위상과 질서, 그리고 가문 어른의 권위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단다.



아, 그래서 조 공자가 정 소저를 구할 때 자신의 아버지인 조 상국의 덕행을 언급한 거군요?

맞아. 조 공자는 정 소저에게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을 일삼으시니’라고 말하며 가문 어른의 권위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또한 이 장면에서 서술상의 특징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서술자가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라며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단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남장 모티프가 나오는 다른 소설들과 이 작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특히 정 소저가 왜 남장을 했는지 그 성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홍계월전」의 홍계월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 남장을 활용하지만, 이 작품의 정 소저는 계모의 박해를 피해 위기를 모면하고 정절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남장을 선택했어. 즉, 자아실현보다는 피신과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아, 이제 구분이 되네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 조 공자는 정 소저의 정체를 아는데 정 소저는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렇지. 그것을 '정보의 격차'라고 하는데, 조 공자는 정 소저가 정혼녀 임을 알지만 모르는 체하며 배려하고, 정 소저는 조 공자가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이러한 상황은 독자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란다.



그럼 시비들은 왜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사실을 말한 건가요?

시비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야. 지금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소저의 백년가약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인의 앞날을 위해 충심으로 진실을 고한 것이지.



시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네요. 마지막으로 강정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정은 조 공자가 정 소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폐쇄적인 공간이야. 이곳에서 비밀을 유지하며 부모님께 알려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버는 거지.



네, 선생님 덕분에 인물들의 행동 이유와 작품의 특징이 명확해졌어요!

그래, 특히 정보의 격차를 통한 서사 전개 방식이나 가문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 남장 모티프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5 | 현몽쌍룡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 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과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들은 조 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채임과 정훈시킨다. 이후 채임의 부친 정 참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복을 하고 도망치다가**(여성 주인공이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남장 모티프’가 사용됨.)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을 속이지 마라.**(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 일행이 남장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 사연을 묻고 있음.) 우리들은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앵과 벽란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를 보았다.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며 골격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 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반악(潘岳)*의 고옥과 위개(衛玠)*의 미려함을 비웃는 듯하였다. 춘앵과 벽란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하였다.**(중국 고사의 인물을 인용하여 조 공자 형제의 외모가 매우 뛰어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특정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며, 인물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중국 고사의 미남자를 인용하여 인물의 비범하고 아름다운 외양을 강조한 것일 뿐, 성격 변화나 신분 상승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벽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물으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 내어 다시 살려 준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어진 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군자구나.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른대로 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 겠구나.’]([: 시비들(춘앵, 벽란)은 조 공자 형제의 비범함과 인품을 신뢰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사실대로 밝히기로 결심함.)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경히 받들어 사례하며 말하였다.

“**천인(賤人)들은 민가의 시비이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께서 태평성대에 액경(厄境)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였습니다.**(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 소저의 불가피한 사정과 위급했던 상황을 조 공자 형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음.) 강도의 흉악한 자취가 목전에 급하여 천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상공의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의 살려 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감히 문사운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 고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귀댁의 시비 항렬에 들어가 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두 공자는 두 사람의 연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임을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히 기특하다. 우리는 조 상국 자제로 선영(先瑩)에 절사(節

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 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벽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혼하고 빙폐를 받은 조 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요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저의 뜻을 몰라 아뢰었다.(자신들을 구해준 이가 정 소저의 정혼자인 조 공자임을 알게 된 시비들이 안도하면서도, 정 소저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려 함.)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창 안에 들어가 소저께 조 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 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에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뢰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정 소저가 집안의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함. ‘정 소저가 집안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신분을 숨기려 한 것은 가문 전체의 위상보다 개인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군.’과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 소저의 행동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효심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몸소 사례하지 못함을 아뢰어라.**(생명의 은인 앞에서 직접 대면을 꺼릴 만큼 ‘남녀유별’이라는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됨.)”

벽란과 춘앵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 공자를 만났으나**(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연히 정혼자를 만나게 되는 전기적 요소를 통해 하늘이 정한 연분임을 강조함.)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시비들은 정 소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저와 자신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시비들이 소저의 지시를 어기고 조 공자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행위는 가문 내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암시하는군.’과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비들이 진실을 고한 것은 주인의 앞날과 정혼자와의 결연을 돕기 위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위계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 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 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디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벽란, 춘앵의 역할을 묻는 문제에서 ‘정 소저와 조 공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인의 비밀을 고지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정 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 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시비들이 조 공자 형제에게 정 소저의 정체와 계모(박 씨)의 학대로 인해 겪게 된 고난(혼사 장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마침내는 소저를 정 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 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으로 바꿔 입고 소저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홍계월전」과 비교하는 문제에서 ‘정 소저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계월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장을 활용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

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정 소저가 강물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정혼자와의 신의를 지키려 한 모습에서 유교적 덕목인 절(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군.’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목민연배포공씨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5 | 현몽쌍룡기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과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들은 조 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채임과 정훈시킨다. 이후 채임의 부친 정 참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복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을 속이지 마라. 우리들은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앵과 벽란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를 보았다.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며 골격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 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반악(潘岳)*의 고움과 위개(衛玠)*의 미려함을 비웃는 듯하였다. 춘앵과 벽란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하였다. 벽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물으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 내어 다시 살려 준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어진 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군자구나.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른대로 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경히 받들어 사례하며 말하였다.

“천인(賤人)들은 민가의 시비이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께서 태평성대에 액경(厄境)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강도의 흉악한 자취가 목전에 급하여 천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 [A] 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상공의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의 살려 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감히 문사온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 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귀덕의 시비 항렬에 들어가 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두 공자는 두 사람의 언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임을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치 기특하다. 우리는 조 상국 자제로 선영(先塋)에 절사(節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 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벽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훈하고 빙폐를 받은 조 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요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저의 뜻을 몰라 아뢰었다.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창 안에 들어가 소저께 조 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 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에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

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리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몸소 사례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벽란과 춘앵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 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조 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 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시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정 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 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 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른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 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으로 바뀌어 입고 소저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장 부인이 이

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 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정 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흥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서리었다. 용흥이 말하였다.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이에 둘째 공자와 의논하고 본부의 강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 까닭에 한 대의 교자를 세내어 소저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서서 정 소저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두 명의 시비가 지키고 가늘고 길게 누에고치를 쳐서 길쌈하여 정 소저에게 올렸다.

두 공자는 정 소저의 근본을 모르는 체하고 강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였다. 소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벽란 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호함을 모르고 있었다. 소저는 두 공자가 종내 살 도리를 이끌어 주는 것에 감사해하고 설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에 이르렀다.

두 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정한 처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저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 저녁의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서 올리라고 말하였다. 또한 포진(鋪陳)과 병풍과 장막을 정결히 하여 정 소저를 머무르게 하고 집 안팎의 비복에게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저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하였다. 춘앵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치를 기다리라고 하고 또 소저에게 말을 붙였다.

“소생이 비록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저의 재앙이 대단합니다.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곳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B]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積善)을 일삼으시니 돌아가 아뢰어 혹시라도 소저께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저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연히 떠났다. 벽란 등은 탄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소저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요행히도 그 남자가 조 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 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음과 옥같이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두루 기이하고 괴이함을 슬퍼하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저는 깊이 집 안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의 음식 걱정이 없고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하였으나 두 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 반약: 서진(西晉)의 문학가. 어릴 때부터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용모가 준수하였음.

* 위개: 진(晉)나라 안읍(安邑)의 사람으로, 뛰어난 외모와 수려한 인품으로 알려짐.

* 액경: 모질고 사나운 운수의 고비.

* 빙폐: 혼례를 올릴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예물.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활용하여 인물들 사이의 긴박한 갈등 양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초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 소저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집안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②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 일행이 남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자임을 간파하고 있다.
- ③ 시비들은 조 공자 형제의 비범한 풍채와 인품을 보고 그들을 신뢰할 만한 인물로 판단한다.
- ④ 정 소저는 조 공자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깊이 감사한다.
- ⑤ 조 공자는 정 소저의 절행에 감동하여 그녀와의 인연이 하늘이 정한 것임을 다시금 확신한다.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방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말하기 방식이다.
- ② [B]는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고, [B]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상대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B]는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비유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외양적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몽쌍룡기」는 전형적인 가문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보다는 가문 전체의 위상과 질서, 그리고 가문 어른의 권위가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교적 가치관인 ‘효(孝)’와 ‘절(節)’을 강조하며, 인물 간의 정보 불균형을 통해 독자의 긴장감과 극적 재미를 유발하는 서사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 ① 조 공자가 아버지의 ‘적선’을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가문 어른의 권위를 중시하는 가문 소설의 특징과 연결되는군.
- ② 정 소저가 강물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정혼자와의 신의를 지키려 한 모습에서 유교적 덕목인 ‘절(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시비들이 소저의 지시를 어기고 조 공자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행위는 가문 내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암시하는군.
- ④ 조 공자가 정 소저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상황은 인물 간의 정보 격차를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치로 볼 수 있군.
- ⑤ 정 소저가 남장을 하고 도망친 것은 여성으로서 겪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절을 보호하려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군.

- ① ‘정 소저’와 ‘홍계월’ 모두 남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
- ② ‘정 소저’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계월’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장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 소저’는 가문의 어른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홍계월’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다.
- ④ ‘정 소저’는 남장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고 있으며, ‘홍계월’은 남장을 통해 유교적 절개를 실천하고 있다.
- ⑤ ‘정 소저’와 ‘홍계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은둔 생활을 선택한다.

6. 윗글의 공간적 배경인 ‘강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 공자가 정 소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거처이다.
- ② 정 소저가 남녀유별의 가치관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폐쇄적 공간이다.
- ③ 조 공자가 부모님께 사건을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버는 장소이다.
- ④ 정 소저가 자신의 근본을 밝힌 시비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고뇌하는 공간이다.
- ⑤ 비복들에게 엄격한 비밀 유지를 명령하여 정 소저의 신분 안전을 도모하는 곳이다.

교난도 5. 윗글의 ‘정 소저’와 <보기>의 ‘홍계월’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홍계월은 어릴 적 난리로 부모와 헤어진 뒤 남장을 하고 ‘홍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녀는 과거에 급제하여 대원수가 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국가적 영웅이 된다. 이후 정체가 밝혀진 뒤에도 황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남편인 보국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한다.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해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성품을 칭찬함으로써 독자의 가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반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사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하여 조 공자 형제의 비범한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은 직유법을 활용하여 정 소저의 사연에 감동한 조 공자의 맑은 눈빛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 ㉡ 모두 인물의 뛰어난 풍채와 고결한 기품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 ④ ㉠은 인물을 관찰한 시비들의 시각을, ㉡은 인물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은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며, ㉡은 인물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9~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과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들은 조 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채임과 정훈시킨다. 이후 채임의 부친 정 참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북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을 속이지 마라. 우리들은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앵과 벽란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를 보았다.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며 골격

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 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반약(潘岳)*의 고움과 위개(衛玠)*의 미려함을 비웃는 듯하였다. 춘앵과 벽란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하였다. 벽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물으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 내어 다시 살려 준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어진 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군자구나.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른대로 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경히 받들어 사례하며 말하였다.

“천인(賤人)들은 민가의 시비이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께서 태평성대에 액경(厄境)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강도의 흉악한 자취가 목전에 급하여 천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상공의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의 살려 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감히 문사 온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 고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귀댁의 시비 항렬에 들어가 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두 공자는 두 사람의 연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임을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히 기특하다. 우리는 조 상국 자제로 선영(先塋)에 절사(節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 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벽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훈하고 빙폐를 받은 조 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요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저의 뜻을 몰라 아뢰었다.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창 안에 들어가 소저께 조 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 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에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뢰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몸소 사례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벽란과 춘앵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 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조 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 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니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정 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택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 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 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른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 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으로 바뀌 입고 소저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 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정 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흥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서리었다. 용흥이 말하였다.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이에 둘째 공자와 의논하고 본부의 강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 까닭에 한 대의 교자를 세내어 소저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서서 정 소저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두 명의 시비가 지키고 가늘고 길게 누에고치를 쳐서 길쌈하여 정 소저에게 올렸다.

두 공자는 정 소저의 근본을 모르는 채하고 강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였다. 소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벽란 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호함을 모르고 있었다. 소저는 두 공자가 종내 살 도리를 이끌어 주는 것에 감사해하고 설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에 이르렀다.

두 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정한 처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저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 저녁의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서 올리라고 말하였다. 또한 포진(鋪陳)과 병풍과 장막을 정결히 하여 정 소저를 머무르게 하고 집 안팎의 비복에게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저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하였다. 춘앵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치를 기다

리라고 하고 또 소저에게 말을 붙였다.

“소생이 비록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저의 재앙이 대단하십니다.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곳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積善)을 일삼으시니 돌아가 아뢰어 혹시라도 소저께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저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연히 떠났다. 벽란 등은 탄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소저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요행히도 그 남자가 조 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 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음과 옥같이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두루 기이하고 괴이함을 슬퍼하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저는 깊이 집 안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의 음식 걱정이 없고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하였으나 두 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 반약: 서진(西晉)의 문학가. 어릴 때부터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용모가 준수하였음.

* 위개: 진(晉)나라 안읍(安邑)의 사람으로, 뛰어난 외모와 수려한 인품으로 알려짐.

* 액경: 모질고 사나운 운수의 고비.

* 빙폐: 혼례를 올릴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예물.

고난도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문 소설에서 ‘천생연분’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묘사된다. 주인공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연히 조우하는 설정은 이들의 인연이 하늘에 의해 정해졌음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또한, 계모의 학대와 같은 ‘혼사 장애’는 인물의 고결한 성품과 절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문 전체의 영광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 ① 정 소저가 나쁜 이들에게 쫓기다 강물에 몸을 던진 시점에 조 공자 형제를 만난 것은 우연성을 통한 천생연분의 강조라고 볼 수 있군.
- ② 계모 박 씨의 모함과 학대로 인해 정 소저가 겪는 고초는 그녀의 빼어난 절행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는군.
- ③ 조 공자가 정 소저의 사연을 듣고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는 부분은 운명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④ 정 소저가 집안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신분을 숨기려 한 것은 가문 전체의 위상보다 개인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군.
- ⑤ 조 공자가 가문의 ‘적선’과 아버지의 권위를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가문 소설의 특징인 가문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군.

10. 윗글의 공간인 ‘강정’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 소저가 남장을 벗고 본래의 여성으로 돌아와 조 공자와 공식적인 혼례를 올리는 장소이다.
- ② 조 공자가 정 소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식으로 구애하는 낭만적인 공간이다.
- ③ 조 공자가 비복들에게 소저의 존재를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정 소저의 신변을 비밀리에 보호하는 공간이다.
- ④ 정 소저가 시비들의 기만적인 태도를 질책하고 스스로 가문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심경 변화의 공간이다.
- ⑤ 외부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져 정 소저가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개방적 공간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서술자가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라며 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있다.

- ① 대화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인물의 정체를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
- ③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갈등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 ④ 서술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나 서술 대상에 대한 초점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인물의 심리가 환경에 순응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2. 정답 ④

정 소저는 조 공자가 자신의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조 공자가 베푼 것에 대해서만 감사해하고 있다.

- ① 정 소저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본을 아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 ② **[매력적인 오답]** 조 공자 형제는 물에서 건져 낸 일행에게 의복은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라고 말했으므로 여자임을 간파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춘앵과 벽란은 두 공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선함을 보고 성인군자라 생각하며 신뢰했다.
- ⑤ 조 공자는 정 소저의 사연을 듣고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3. 정답 ②

조 공자는 정 소저의 고초에 공감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뢰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① 벽란은 상대에게 신뢰를 보이며 자신들의 사연을 밝히기 위해 이름을 묻고 있다. 상대방의 권위를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벽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밝히고 있으며 조 공자는 신분을 과시하거나 복종을 요

구하지 않았다.

- ④ 벽란은 구원받은 처지에서 은혜를 갚고자 할 뿐이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은 없으며, 조 공자 역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대의 실수를 포용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의 외양적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정답 ③

시비들이 진실을 고한 것은 주인의 평생을 보호하고 정혼자와의 결연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가문 내 위계질서가 붕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① **[매력적인 오답]** 주인공 개인이 아닌 가문의 어른인 아버지의 덕행을 빌려 해결하려는 모습은 가문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 ②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는 위기에서 자결을 택하려 한 정 소저의 태도는 유교적 절개를 강조한 것이다.
- ④ 조 공자는 정체를 알지만 정 소저는 이를 모르는 정보의 불균형 상태는 독자의 호기심과 재미를 자극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 ⑤ 남장은 여성 주인공이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정답 ②

정 소저는 계모의 박해와 강제 혼인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였으나 흥계월은 남장을 통해 대원수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 ① 정 소저는 남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자아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 ③ 정 소저를 돕는 조 공자가 가문의 어른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며, 흥계월은 남편인 보국보다 높은 지위에서 스스로 공을 세우는 인물로 남편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아니다.
- ④ 정 소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남장한 것이므로 유교적 질서 내에 있으며, 흥계월은 남장을 통해 절개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정 소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흥계월은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한다.

6. 정답 ④

정 소저는 시비들이 자신의 근본을 밝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조 공자의 배려에 감사하며 머무르고 있다.

- ① 조 공자는 정 소저를 편안하게 안돈시키기 위해 비어 있는 강정으로 그녀를 안내한다.
- ② 정 소저는 깊숙한 곳에 머물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 ③ 조 공자는 도성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아뢰어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정 소저를 이곳에 머물게 한다.
- ⑤ 조 공자는 안팎의 비복들에게 소저의 존재를 누설하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7. [정답] ②

서술자가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 '감동시킬 만하다'라고 직접 평가하며 독자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① 꿈을 꾸는 장면은 앞부분 줄거리에만 언급될 뿐 본 장면에서는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자연물에 빚댄 묘사는 있으나 이는 인물의 외양을 미화하기 위한 용도일 뿐 반어적 표현은 아니다.
- ④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시간의 역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거나 현장감을 부여하는 서술 방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8. [정답] ⑤

㉠과 ㉡은 인물의 아름다운 외양과 비범한 분위기를 강조할 뿐 인물의 성격 변화나 신분 상승과는 무관하다.

- ① ㉠은 반악과 위개라는 중국의 실존 미남자를 인용하여 조 공자 형제의 수려한 외양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은 '가을 물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 공자의 맑고 빛나는 눈빛을 감각적인 직유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조 공자의 비범하고 뛰어난 풍채와 아름다운 기품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수사적 표현이다.
- ④ [매력적인 오답] ㉠은 두 공자를 본 시비들의 생각을, ㉡은 정 소저의 사연을 듣는 조 공자의 모습을 서술자가 묘사한 것이다.

9. [정답] ④

정 소저가 신분을 숨기려 한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효심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개인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

- ① 위기의 순간에 정혼자를 우연히 만나는 전기적 요소는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이 정한 것임을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 ② 계모에 의한 시련은 주인공의 인내와 절개를 돋보이게 하며 독자의 동정심과 몰입을 유도한다.
- ③ 조 공자는 정 소저의 고초를 들으며 그녀의 절개에 감동하고 둘의 만남이 필연적인 운명임을 확신하게 된다.
- ⑤ 조 공자는 개인의 힘이 아닌 가문의 덕행과 부친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가문의 질서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가문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0. [정답] ③

조 공자는 비복들에게 엄명을 내려 정 소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게 함으로써 그녀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① 강정은 임시 거처일 뿐이며 이곳에서 공식적인 혼례가 치러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조 공자는 정 소저의 근본을 모르는 체하며 배려하고 있을 뿐 자신의 정체를 밝히거나 구애하지 않는다.
- ④ 정 소저는 시비들이 진실을 고한 것을 모르고 있으며 조 공자의 의기를 감탄하며 평안을 얻고 있다.
- ⑤ 강정은 조 공자의 지시에 의해 철저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럽게 관리되는 보호의 공간이며, 정 소저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